

통신·정보·인간 융화의 한국통신

대담 : 조백제 사장/진용옥 이사

회지 창간에 즈음하여, 우리 연구회의 특별회원사 탐방 대상으로 한국전기통신(약칭: 한국통신)을 택하였다.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직원 6만여명에 연간 매출액 5조원이 넘는 국민 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곧 주식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침 이 거대조직의 살림을 꾸려나가야하고 정보화 사회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을 책임져야하는 사장직에 새로 부임한 趙伯濟 사장과 陳庸玉 이사(경희대 전과공학과 교수)가 만나 새로운 경영에 임하는 자세와 포부 및 정보사회에서의 한국통신의 역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사장은 「경영사고의 민영화」 「공생의 복지」 「첨단 인재의 발굴」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새로운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포부를 역설한바 있다.

대담을 같이한 진용옥 이사는 당시 한국통신의 비상임 이사였으며 정보통신공학 전공이다. 우리연구회가 구성하여 수행한 위성통신법(안) 연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시스템공학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통신정책 연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편집자〉

〈진용옥 이사〉

한국통신이 공사로 발족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3대 사장으로 취임한 조사장은 전임 사장들과 비교할 때 통신분야의 비전문가라는 점, 「현대상선」이라는 민간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다는 점,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점, 그러면서도 통신정책을 연구하는 통신개발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다는 점 등이 특이해 보입니다. 국내 최대의 공영기업 총수가 이런 다양한 경력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궁금하군요.

〈조백제 사장〉

경영은 종합예술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한국통신의 사장이 꼭 통신분야의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통신에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인사 재무영업 등 모든 기업경영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최고경영자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본래 전공은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은 조직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학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런데 올바른 평가는 정확한 정보에 달렸어요. 정확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경쟁의 성패가 판가름나죠. 그런 점에서 정보 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정보사회와 회계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용옥 이사〉

산업의 발달과정에 따라 정책도 바뀝니다. 농

업사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었고, 산업 사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에 맞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종래 산업위주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끔 빨리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산업 자체에 대한 육성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든 산업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합니다. 농업의 정보화나 제조업의 정보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조백제 사장〉

— 정보가치의 극대화 지향 —

정보화는 종전의 모든 산업을 정보화하는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 자체를 산업화하는 정보의 산업화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진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업의 정보화로, 정보의 산업화와 병행해서 한국통신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용옥 이사〉

한국은 현재 전력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비교적 문제가 덜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지난 10년간 통신분야 기술개발에 선도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국영기업체 가운데 매출액의 3%수준을 기술개발에 투자한 곳은 한국통신밖에 없었니까요. 또 한국 통신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자기가 벌어들인 자기가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전화 위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90년대 들어 통신분야의 환경이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기본통신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첨단 정보통신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본 통신시장의 문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를 요구할 날도 멀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런 때 한국통신의 역할도 재정립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백제 사장〉

— 정보화 산업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가입전화 적체를 해소한 상태일 뿐 정보통신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정보화에 바탕을 둔 정보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현재 정보사회 건설에 엄청난 국력을 쏟고 있어요. 정보사회는 발전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뒤지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실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도 정보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을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통신망과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를 잘 정비하고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진용옥 이사〉

통신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 유지돼 왔던 자연독점이 무너지면서 자유화, 개방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통신은 지난 82년 공사체제로 전환된 이후 다시 민영화라는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50% 이상의 국가지분이 유지되기는 하겠지만 한국통신 자체도 민영화시대에 맞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의식 구조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백제 사장〉

— 경영사고의 의식개혁 —

한국통신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인 민영화는 정부의 주식을 매각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경영의 민영화입니다. 일하는 사람 자체의 사고가 민영화되면 제도의 민영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

로 봅니다. 본질은 경영사고의 민영화에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사고가 먼저 민영화돼야 한다는 뜻이죠. 이를 위한 의식개혁을 추진할 참입니다. 개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개혁이 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이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개혁은 소리 없으면서 냉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중단하면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용욱 이사>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 운송사업 전반이 아닌 철도 사업만을 고집하다가 시기를 놓쳐 결국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미국 첨단 산업체의 대명사나 마찬가지로 있던 IBM도 대형 컴퓨터만을 고집하다가 적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신분야의 경쟁과 개방추세를 호기로 삼아 한국통신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오히려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백제 사장>

— 국제시장 진출 모색 —

한국통신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한국통신은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에 사업의 역점을 계속 둘 생각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하는 추세인데다, 정보통신산업이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첨단기술의 경쟁에서는 「열심」이라든지 「성실」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첨단 교육을 받은 인재를 얼마나 빠른 시일에 발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은 인재를 일정비율로 매년 뽑아 수혈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은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재발굴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과

감히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릴 생각입니다.

<진용욱 이사>

현재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30원으로 시내통화가 가능합니다. 30원 이내의 사회적 거래단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수입을 한 알의 밀알로 삼아 국산 전 전자교환기로 개발하고 16메가 디램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된 거죠.

자기가 벌어서 남에게 투자하면 그것이 또 구매력을 높여 자기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산업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백제 사장>

— 연구인력,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

한국통신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AT&T와 일본 NTT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구인력도 20분의 1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관리비 등 기술투자와 무관한 비용은 철저히 절약하고 줄여서 전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공사 수입이 기술투자 외의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겠어요. 국민들도 공사가 국민 기업이라고해서 당장 눈앞의 요급인하만 주장해서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축적한 재원이 핵심적인 기술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는지 국민적 감시도 따라야겠습니다.

<진용욱 이사>

한국통신 직원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에게도 고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21세기를 준비하는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뚜렷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아무런 이윤동기 없이 땀흘리기만을 요구한다면 흔쾌히 따라줄 자가 의문입니다.

<조백제 사장>

— 자긍심을 갖는 일터 —

직원들의 복지는 「公生」의 복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현재와 같은 물리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정신적인 복지도 중시해야 합니다.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것을 동료와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한국통신에 일생을 바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진용욱 이사>

끝으로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무궁화 위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위성화 시대의 미래상에 대하여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백제 사장>

— 무궁화호 위성사업 —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방송위성으로 대 국민 공모를 통하여 명칭을 확정된 무궁화위성 1호 및 2호를 '95년 4월과 10월에 발사하여 난시정지역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선명한 TV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3채널과 화상회의 및 유, 무선 TV 프로그램중계, 고속 및 저속 데이터전송, 도서벽지 및 비상재해통신 등 정보화사회의 첨단 통신, 방송 위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통신 선진국으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무궁화위성의 위성체 및 관제시설 제작은 미국의 GE-Astro사가 주계약자로 영국의 Matra Marconi 및 국내 금성정보통신과 대한항공이 부계약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작완료된 위성은 미국의 McDonnell Douglas사의 델타II 로켓을 이용하여 우주궤도(정지궤도)에 진입시켜 운용하게 되며 위성을 감시제어 하기 위한 지상관제소는 '9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1세대 무궁화 위성사업의 위성체 및 관제시설, 발사체 등 주요시설의 도입과 병행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 기술 전수훈련 시행과 기반 기술의 연구추진 및 주요 지구국장비의 국내 개발을 통하여 제2세대 무궁화 위성사업을 위한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념

《정보·통신·인간의 융합》

- 한계에 도전하는 세계첨단기업
-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통신사업
- 고객과 함께하는 인간중시경영